

시론

이더넷 탄생 40주년에 부쳐



로버트 밥 멧커퍼  
美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이더넷 발명자)

올해는 이더넷(Ethernet)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 프로토콜이 세상에 첫선을 보인 지 40년이 되는 해다. 이더넷은 1973년 5월22일 제록스 팰로앨토 연구소에서 낱김에 도표와 개념을 요약한 메모에서 출발했다. 세상에는 데이비드 보그스와 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더넷 기술 통해 집단지성 생겨나

1970년대는 실리콘밸리에서 정보기술(IT) 혁신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다. 굉장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를 혁신의 황금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때는 구굴도 인터넷도 없었다. 진정한 혁신 문화는 이더넷이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비로소 촉발됐다. 40년 전 낱김 메모지에서 시작된 이더넷은 더 큰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이더넷은 전혀 흥미롭지 않은 단일 노드도 시작했다. 이후 진

화를 거듭하면서 10Mbps에서 Gbps, 그리고 최근에는 Tbps를 넘어 멀티Tbps 속도까지 발전했다. 이제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건물이 없을 정도로 이더넷은 기업 업무에 필수 요소가 됐다. 그러나 초창기 혁신은 책상 위에 그냥 PC를 놓은 수준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더넷 발명 후 우리가 해야 했던 일 중 하나는 케이블을 들고 복도 중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PC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업무가 가능해졌다.

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더넷 구축작업은 곧 제록스 연구소 전체로 확대됐다. 1970년대 후반 제록스 외에 다른 곳에도 이더넷을 설치했고 이후 쓰리콤(3com)사를 만들어 상업용 이더넷 카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년 동안 이더넷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반의 경쟁 관계를 종식시키고 LAN을 장악했다. 또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캐리어 이더넷(유-무선)을 수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이더넷을 통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광대역통신망(WAN) 기술 대신 개별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지난해 캐리어 이더넷 매출은 처음으로 모든 WAN 기술을 합친 것을 넘어섰다.

이더넷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캐리어 이더넷을 받아들였다. 한국의 통신사들이 캐리어 이더넷을 핵심 유

선 인프라에 적용하고 포천시청 같은 공공기관도 도입했다.

이는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캐리어 이더넷 기술은 전 세계의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더넷은 글로벌 기업이 세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혁신 속도 빨라지고 범위 넓어질 듯

필자에게 진정한 혁신이란 이더넷으로 인한 업무 환경의 변화다.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힘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더넷을 통해 만들어냈다. 집단지성을 통해 빨라지는 혁신의 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발명 40주년을 맞은 이더넷은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넓히고 기업에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와 인터넷은 이 시대에 집단지성을 가져다줬으며 현재와 과거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다면 향후 이더넷 발명 50주년에 누가 어떤 형태의 혁신을 가져다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혁신가와 기업가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비록 10년 후의 비교적 짧은 미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상은 무한히 커지고 있다.

社說

정치권은 복구의 법인세 도미노 인하를 보라

복지강국 북유럽에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스웨덴이 지난해 법인세를 26.3%에서 22%로 낮추기로 결정하자 올 들어 인접국인 핀란드와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감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4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고수해온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부유세까지 부과한 적도 있다. 북유럽 감세 도미노 현상의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사수 때문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른 국가들이 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그쪽에 빼앗긴다"는 비야르네 코르넨 덴마크 재무장관의 설명은 이를 잘 말해준다.

물론 기업은 투자를 저울질할 때 세부담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곳으로 옮기려는 것은 기업의 생리다. 1.450억달러의 현금을 쌓아둔 애플이 최근 170억달러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도 해외 유보금을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

이었다. 애플의 절세전략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세금도 몰라도 법인세만큼은 내리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과하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을 의미하는 준조세를 합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기업의 준조세 규모가 법인세의 90%에 이르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대만과 홍콩·싱가포르 같은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10% 후반대로 낮춘 지 오래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엔저정책도 모자라 조만간 법인세를 35%에서 20%대로 썩듯 잘라내겠다는 것도 예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지난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부조사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계적 조류에 나 홀로 역주행하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투자 지원해야

국회가 과잉처벌 논란이 여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보다 과징금 벌금 등을 낮췄지만 업계는 다른 법에 비해 여전히 과중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 때 과잉입법 논란을 잠재우는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소홀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한노위와 환경부가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잉입법 논란이 빚어졌다. 처벌은 법리에 맞게 이뤄져야 감정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완화했다. '해당 기업 매출액의 10% 이하'로 정했

던 한노위 원안에 대해 업계가 "폐업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최대일수가 6개월이고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하면 낮은 과징금도 여전히 과중하다. 새누리당에서 매출액의 1% 이하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때 참고하길 바란다. 한번 실수로 치명상을 입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고 하도급 업체가 화학사고를 낸 경우 원청업체도 형사 처벌하는 원안을 수정한 것도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귀결이다.

화학사고 사후처벌 법안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70~1980년대에 들어선 화학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설비교체·개선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공기업 연봉 1억 누가 납득하겠나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10대 그룹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8,889만원)보다도 1,000만~2,000만원이 많다. 금융공기업 9곳의 전체 평균 연봉도 8,667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이 역시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2,817만원)의 3배가 넘는다. '신도 놀란 직장'이라는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가 보다.

금융공기업 연봉은 전 정권 초기까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소폭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비판이 가리양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 9곳 중 8곳이 최근 2년간 7~12% 인상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지난해에만도 6.17%나 뛰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2.22%의 3배나 된다.

경영을 잘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순이익이 50% 이상 급감했고 코스콤과 예탁원 역시 각각 35%, 24% 줄었다.

정책금융공사는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회사는 망들려가는데 임직원들은 배를 두드리는 꼴이다.

금융공기업이 방만경영을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 노조와 권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인기와 상관없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몫부터 챙기자는 인식도 한몫 했을 것이다. 임직원들 역시 경쟁자가 없으니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금융공기업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부어 만든 곳이다. 실적개선 없이 직원 봉급이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세는 곳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CEO의 임기를 보장해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포럼

황혼이혼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들어 백년해로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회동향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율이 1990년 5.2%에서 2011년 25%로 늘었다고 한다. 불과 20년 만에 황혼이혼율이 다섯 배나 증가한 것이다. 배우자 만족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50대 중년 여성으로 갈수록 남편에 대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 변화에 노년층 불화 늘어

황혼이혼이란 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낯선 단어였다. 사회의 비판적 시선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으며 자식이 '보호인자' 역할을 했으나 여성의 권익이 향상됨에 따라 참고 사는 미덕이 끝난 것이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큰 원인을 차지한

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부부 간의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부부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가부장 문화에 따른 낮은 친밀도로 황혼이혼이 높아진 것이다. 오죽하면 '60대는 살갗만 닿으면 이혼당하고' '70대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겠는가.

범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때다. 황혼이혼 예방을 위해 '올바른 대화법' '부부애 회복'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정은 남성의 사회생활 은퇴와 여성의 자녀 양육이 끝난 다음에 부부가 하루 종일 집안에 같이 있게 된다. 이때부터 소통 부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상대방과의 대화 방법과 공감은 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부부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부부의 평등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젊은 부부를 위한 '새내기 부부학교', 노년층 부부를 위한 '실버 부부학교'와 같은 성인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배우자를 위한 간단한 요리와 세탁기 사용법, 빨래 접는 법 등의 가사일을 배우기도 하고 아내와 친구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과정 개발도 진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마련해주거나 부부 전용 상담소·병원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갱년기를 기점으로 호르몬의 변화와 분노 조절 능력 감소 등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체 노화에 따른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부부간 소통 위한 프로그램 늘려야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혼기 이혼의 증가는 사생활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가정이 병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노년 부부의 삶은 젊은 세대들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관 형성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정·사회단체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모아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코리아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름  
영어 국제방송 Arirang

한류, K-Pop, 월드컵 4강, 경제 대국, G20 개최국...

세계가 기억하는 코리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문화와 생활, 역사,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아리랑TV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코리아입니다.

영어 국제방송 아리랑TV는

세계인의 눈과 귀를 더욱더 코리아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www.arirang.co.kr



프로그램 소개

[Korea Today] 월-금 07:00-08:00, 주말 07:00, 라이브 모닝 뉴스쇼  
[Arirang News] 06:00, 12:00, 18:00, 22:00,  
[Simply K-Pop] 화 11:00, 외국인 관객들과 함께하는 K-Pop 미니콘서트  
[The Sensation] 월 11:00, 장단 배우기, 명인다큐, 국악공연 등을 주제로 한 신개념 국악 프로그램

[Heart to Heart] 월 09:00, 아리랑TV 대표 스튜디오 토크쇼  
[The INNERview] 화 09:00, 세계적인 명사, VIP, 행사 현장을 찾아가는 토크쇼  
[ Bizline ] 금 09:00,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 집중 분석  
[Discover World] 월-금 10:30,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원어 방송

Asia's Heartbeat  
Arirang